

고등학교 동아리 문화의 현실과 과제

이 인 규*

- I. 동아리 활동의 의미
- II. 클럽활동에 관한 교육과정지침과 실제
- III. 동아리 활동의 실태와 문제점
- IV. 결론 및 대책

I. 동아리 활동의 의미

‘동아리’란 ‘비슷한 것끼리 작게 뭉친 것’이란 어감을 갖고 있다. 실제 ‘씨클 *circle*’이라는 외래어를 대신한 이 말은, 1970년 후반부터 대학가를 중심으로 널리 쓰이다가 현재 중·고등 학생들에게까지 폭넓게 쓰이고 있다. 그러나 ‘동아리’라는 용어가 단순히 ‘씨클’이라는 용어를 대체하는 말은 아닐 듯하다. 외래어를 굳이 순우리말로 고쳐쓴 의지만큼, 학생들의 친목 및 단체활동의 자주적 의지가 담겨 있다.

이 글에서 굳이 ‘동아리’란 용어를 채택한 것은 이미 학생들사이에서 일반화된 말이기 때

문에 외래어를 차용할 필요가 없어졌고, 한편으로는 학생 활동의 자주성이 보다 고양되어야 할 시대적 필요성에 동감한 탓이다.

그러나 이 글에서 사용할 몇가지 비슷한 개념에 대해 정리할 필요는 있다. ‘특별 활동’, 과 ‘클럽 활동’, ‘씨클 활동’이 그것이다.

특별 활동은 공식적으로 1954년에 비로소 교육과정 지침서에 등장한 개념이다. 해방 이후 제1차 교육과정 개정 작업이 이루어지기까지 특별 활동은 학생들의 자발적인 활동에 의한, 정규 교과과정과는 무관한 과외 활동으로 인식되었다.¹⁾ 그러다가 미국진보주의 교육운동의 영향으로 교육과정을 ‘학교의 지도 하에 학생들이 갖게 되는 경험의 총체’라고 규정하게 되면서, 그때까지 유포되었던 ‘교과과정=교육과정’이라는 등식에 이의를 제기하고, 특별 활동을 하나의 공식적 교육활동으로 인정한 셈이다.

* 동국대학교 대학원 교육학과 박사과정

1) 문교부, 특별활동 교육과정 해설(고등학교), 1988, pp. 83-88. 특별활동의 다른 용어로서, (교)과외 활동 *extra-curricula activity*이라는 용어가 특별활동의 의미와 교육과정에서의 위치를 잘 나타내 준다. 그러나 교과외 활동은 형식적 교육과정의 주변에 위치하기 때문에 과외 *extra*인 것이 아니라, 부가된 학습 경험을 제공하기 때문에 과외이다. (L B Otto *Extracurricula Activities*, In H J Walberg(ed.), *Improving Educational Standards and Productivity* Berkeley, CA. McCutchan, 1982, p 226)

당시 문교부령 제 35호로 제정·공포된 「교육과정 시간 배당령」에서의 특별 활동에 대한 해석은 다음과 같다.²⁾

제6조, 본 령에서 특별 활동이라 함은 교육목적 및 교육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교과 이외의 기타 교육활동을 말한다. 특별 활동은 다음 각 호의 일에 해당하는 것이어야 한다.

- 一, 집회, 기타 민주적 조직 하에 운영되는 학생 활동에 관한 것.
- 二, 학생의 개인 능력에 의한 개별 성장에 관한 것.
- 三, 직업 준비 및 이용 후생에 관한 것.
- 四, 학생의 취미에 관한 것.

말하자면 '학교 교육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마련한 교과 학습 활동 이외의 학교 교육활동, 즉 학생의 개성 신장, 건전한 취미와 특수 기능, 그리고 민주적 생활태도 등을 육성하기 위하여 학생회, 클럽활동, 학교행사 등을 통하여 행해지는 교육활동'³⁾이 특별활동인 것이다. 그렇다면 클럽 활동은 특별 활동의 한 종류로 확인된다.

현행 교육과정 지침에서도, 특별 활동의 분야를 ① 학급 활동, ② 클럽 활동, ③ 학생회 활동, ④ 학교 행사 활동으로 구분한다. 다시 학급 활동은 협의 활동, 위원활동, 상담 활동으로, 클럽 활동은 학예 활동, 체육 활동, 생산 근로 활동, 청소년 단체 활동, 여가 활동, 학교 특정 활동으로 구분한다. 또 학생회 활동은 협의 활동, 위원 활동의 2개 영역으로, 학

교 행사는 의식 행사, 학예 행사, 체육·보건 행사, 안전지도 행사,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행사, 학교 특정 행사의 7개 영역으로 구분한다.⁴⁾

이상의 구분에 의하면, 클럽 활동이란 '일정한 교육적 목적에 따라 학교에서 인정되어, 취미와 기호, 경험을 같이 하는 학생 소모임 및 단체 활동'을 의미한다.

그러나 '씨클 활동'은 클럽 활동과 또 다르다. 일반적으로 씨클 활동은 학교 시간표에 배당된 특별 활동 시간 이외의 시간에 따로 하고 있으면 씨클이 되고, 주어진 특별 활동 시간에 만 모임이 운용되면 이는 씨클이라 일컫지 않는다.

클럽 활동이나 씨클 활동은 '단체 활동', 혹은 '단체 생활'이란 용어와도 혼동될 경우가 있다. 단체 활동은 클럽 활동 중에서도 전국 수준 및 지역 수준의 청소년 단체 또는 종교 단체 등에 가입하여 활동하는 것을 의미한다. 또 단체 생활은 대개 학교행사 중에서 극기 훈련이나 위문·봉사 활동을 의미할 경우가 많다.

앞에서 밝힌대로 동아리 활동은 씨클 활동을 대체하는 말이면서도, 그 의미에 있어서는 학생들의 자주적 활동이 보다 용인된 상태를 의미한다. 한국청소년연구원의 보고서에서는 동아리 활동을 '취미나 소질, 가치관이나 문제의식 등을 공유하는 청소년들에 의해 자생된 자치 씨클 활동'⁵⁾이라 정의하고 있다. 그리고 동아리 활동을 청소년 활동의 종류에 포함시킨

2) 함종규, 한국교육과정 변천사 연구, 숙명여대 출판부, 1983, pp 231-232에서 인용

3) 서울대학교 사범대학 교육연구소 편, 교육학 영어 사전, 서울:배영사, 1981

4) 문교부, 앞의 책, pp 88-111

5) 한국청소년연구원, 청소년 활동 동기부여 방안, 1991, p 29 원래 씨클 활동이든, 다른 특별활동이든 모두 학생의 자발성과 자율성을 기초로 이루어지는 교육 활동이다. 우리나라 제3차 교육과정 지침서에는 특별활동의 목표를, "자발적이고

이유로써 두 가지를 든다. 첫째, 동아리 활동은 특별 활동이나 단체 활동과 같이 집단 활동의 성격을 가지고 있지만, 이들과 달리 활동의 이니셔티브를 청소년 자신이 가지고 있어 자치적 측면이 더욱 강조되는 독특한 활동이며, 둘째, 동아리 활동은 일회적 모임으로 끝나는 활동이 아니라 지속성을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 임의적으로 이루어지는 집단 여가 활동과 구분되는 활동이라는 것이다.

동 연구에서는 동아리 활동의 특징으로 '교육과정 밖에서 존재' 한다고 들었다. 그러나 이점은 자칫하면 동아리 활동을 '비제도권(운동권) 씨클 활동' 혹은 '음성(불량) 씨클' 과 동일시할 우려가 있다. 이를 분명히 짚고 넘어가지 않으면 안된다. 밝힌대로 학생들 사이에서 이미 '동아리' 는 '씨클' 의 대체어로서 통용되고 있으며, 학교에 등록되기 이전의 씨클이 존재하는 만큼의 미등록 동아리가 존재할 따름이라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불량 씨클이란 말은 쓰이지만, 불량 동아리란 말은 쓰이지 않는만큼 동아리는 씨클보다 '의식적'이다.

그러면 동아리 활동은 교육과정과 어떠한 관련을 맺고 있는가? 교육과정에서 차지하는 동아리 활동의 위치는 교과외 활동 *extra-curricular* 으로서의 특별활동에 속하나, 주 1시간에 배당된 특별 활동 시간에만 한정된 것은 아니다. 목표 설정→수업의 전개→평가에 이르는 교과 교육의 일반 과정과는 다르게 학생의

주도 하에 활동이 이루어지며, 교사의 역할은 조정, 통제, 평가, 행정지원 등이 주가 된다. 그러므로 본질적으로 법적 문서 상의 교육과정 지침에 의하여 동아리 활동의 방향이 결정되기 보다는 교육과정 외적 맥락 *noncurricular context* 에 의하여 결정된다. 교육과정 외적 맥락이란, 학교의 지도 방침, 학교 재 규정의 성격, 학생회의 결합력, 교사 의식, 학교 밖의 정치적·문화적 상황 등을 의미한다.

이러한 점에서 대다수의 씨클 활동에 대한 기존의 교육과정론적 접근에는 한계가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선행 연구들은 특별 활동이 임시 위주의 교육 풍토로 인하여 파행적으로 운용되고 있고, 교사의 자질, 시설 및 보조 교재 부족 등으로 대단히 비효율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고 밝히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연구 결과⁶⁾ 들은 특별활동이 하나의 교육과정 활동으로서 부진한 데 대해서는 어느 정도 설명을 해주고 있지만, 학교 문화 현상의 하나로서 학생들 삶의 전반을 이해하고 문제 해결의 올바른 관점을 제시해주는 데는 미흡하다. 동아리 활동의 시간을 배당하고, 각 교실과 교사를 배치하며, 교사들로 하여금 질 좋은 수업지도안을 준비하도록 하는 것은 교육과정 전문가와 교육행정가의 임무이지만, 동아리 활동 자체의 주체는 엄연히 학생 자신이라는 점을 간과한다면, 여건이 비록 마련된다고 해도 특별 활동의 내실화는 기대하기 힘들 것으로 생각된다. 동아

자율적인 생활 경험을 통하여 사회성의 신장을 도모하고 민주적이며 협동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공민으로서의 소양을 기른다" 고 되어 있다. (문교부, 국민학교 교육과정, 1973, p233) 그러므로 동아리 활동이라는 개념에서 특별히 씨클 활동과는 다른 의미를 더 부여하는 것이 옳지 않을 수도 있다는 점도 이점에 있어서는 일단 수긍한다.

6) 선행 연구로는, 함종규, 교육과정에서의 특별활동의 위치, 숙명여대 출판부, (제15집), 1975함종규, 인간 형성을 위한 특별활동의 이론과 실제, 과학교육사, 1981한국교육개발원, 제5차 초·중학교 특별활동 교육과정 시안 연구개발, 1986 등이 있다. 기타 석사학위 논문들이 다수 있다.

리 활동이란 본질적으로 학생들의 자주적인 활동을 의미하기 때문에, 단순히 학생을 학교 정책의 대상이나, 교수의 대상으로서만 간주하는 것은 동아리 활동의 본질을 왜곡시킬 우려가 있다.

더구나 특별 활동의 여건 마련을 위한 정책들은 재정 확보, 교육과정 개편, 의식 개혁 등 어느 것 하나 중첩되지 않은 것은 없다. 중첩된 과제의 실타래를 풀기 위해서는 그 핵심을 짚을 필요가 있는데, 그 핵심이란 특별 활동에서의 활동의 주체를 올바르게 세우는 일인 것이다. 바로 이 점이 하나의 학교 문화로서의 동아리 활동을 진단하고 대책을 마련하는 의의일 것이다.

이 글이 지니는 문제 의식은 다음과 같은 것이다.

(1) 동아리 활동 운영에 있어 교육과정 지침과 실제의 교육과정에 어떤 차이를 보이는가? 첫째, 지침서와 현장의 교육 목표가 일치하는가? 둘째, 시간 배당은 지켜지는가? 만약 차이가 있다면 그것은 왜인가? 입시 위주 교육 풍토 때문인가? 권위주의적 교육 구조 탓인가?

(2) 학교—학생의 합의된 목표는 존재하는가? 또 학생들 사이에서는 합의된 목표가 존재하는가? 불일치하다면 동아리 활동을 보는 각각의 시각은 무엇인가? 각각의 시각에 대한 상호 간의 고정 관념은 무엇인가? 상호 간의 갈등의 양상은 무엇인가?

(3) 실제 동아리 활동은 어떤 양상으로 진행되는가? 동아리 활동에 참여하는 학생들은 충

분히 자발적인가? 학생들은 동아리 활동에 있어서 표현의 자유와 결사의 자유를 충분히 보장받고 있는가? 학생회는 동아리 활동에 어떠한 방식으로 관여하는가?

(4) 동아리 활동이 정상화되기 위한 사회적 여건은 무엇인가? 학교 차원에서 실현해야 할 과제는 무엇인가?

II. 클럽 활동에 관한 교육과정 지침과 실제

제5차 교육과정 지침서에서는 고등학교 특별 활동의 일반 목표를 다음과 같이 진술하고 있다.⁷⁾

집단 활동에 자발적으로 참여하고 자유롭게 자기 표현을 하는 기회를 통하여, 심신의 조화로운 발달을 도모하고, 자주적이고 협동적인 민주 시민으로서의 자질을 함양하게 한다.

일반 목표의 전문 다음에 4개의 항목으로 제시된 하위 목표들은 다음과 같다.

(1) 자아를 탐색하고 표현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지게 함으로써 개성과 소질을 신장하고 스스로 진로를 결정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르게 한다.

(2) 다양한 활동 경험을 통하여 풍부한 정서 생활을 할 수 있게 한다.

(3) 스스로 의사를 결정하고 실천하는 과정을 통하여 자주적인 생활 태도를 가지게 한다.

(4) 집단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게 하여 공동체 의식을 함양하고 협동과 봉사의 정신을 가지게 한다.

서론 부분에서 진술하였다시피 특별 활동은 학급회의, 클럽 활동, 학생회 활동, 학교행사의 네 부분으로 구분된다. 지침서는 특별 활동

7) 문교부, 앞의 책, p111-115

의 두번째 영역인 클럽 활동의 교육목표를 다음과 같이 세분화하고 있다.

- (1) 관심과 취미가 다른 활동 분야에 참여하여, 소질과 적성을 계발하고 창의성을 신장할 수 있게 한다.
- (2) 교과 활동에서 학습한 지식과 기능을 활용하는 기회를 가지게 함으로써 학습 효과를 높인다.
- (3) 단체 활동에 능동적으로 참여함으로써 협동심을 기르고 원만한 인간 관계를 형성하게 된다.
- (4) 참신하고 다양한 경험을 통해 심신의 조화로운 발달을 도모한다.

이상을 종합하여 보면, 소질과 적성의 발견 및 신장을 위하여 이에 적절한 부서를 선택하고, 선택한 부서 내에서 열심히 활동함으로써 자신을 새롭게 하고자 하는 것이 클럽 활동의 으뜸 목표이다.

현행 제5차 교육과정에서의 특별활동의 시간 배당을 보면, 초·중·고 공히 학급회의 주 1시간, 클럽 활동 주 1시간으로 편제되어 있다. 1995년부터 적용되는 제6차 교육과정 개정안은 학급회의 주 1시간을 없애고, 대신 클럽 활동을 주 2시간으로 확보하도록 하고 있다. 또 단체활동이라는 교과를 따로 설정하여 학교 밖에서 집단 생활에 관한 프로그램 지도를 받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실제 클럽 활동의 운영은 어떤가? 선행 연구들의 문제 의식의 대부분은 현재 임시 위주의 교육 풍토로 인하여 학교 행정가, 교사, 학생, 학부모들의 무관심 속에서 형식적이고 파행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서울시내의 한 인문계 고등학교의 경우를 보면, 91년도 학교 연간계획 상에는 클럽 활동 시간이 총 72시간으로 계획되었고, 생활기록부의 평가란에서 72시간을 실시한 것으로 되어 있으

나, 실제 클럽 활동을 실시한 시간은 20시간이 채 되지 않는 실정이며 이러한 현상은 대부분의 다른 인문계 고등학교도 마찬가지이다. 클럽 활동이 실시되지 않는 이유는, 우선시 운동장에서 실시되는 클럽 활동이 불가능하고, 학기 시작과 종료 시에 클럽 활동에 소요되는 행정적 처리(부서 편성 및 배치, 클럽 활동 평가 등)와 검사(지능검사, 심리검사, 체력검사, 건강 진단)등의 학교 행사로 클럽 활동을 실시하지 못하는 일이 많다. 이러저러한 이유로 뛰엄뛰엄 실시되는 클럽 활동은 시간시간마다 그 연계가 곤란하고, 학생과 지도 교사들은 적절한 준비를 할 수가 없어서 단순히 '시간 때우기' 식으로 클럽 활동을 마치는 경우가 허다하다. 중학교와 고등학교 3학년의 특별활동은 아예 보충수업 및 자율학습으로 대체되는 일은 어느 학교나 관례로 굳어 있다. 일부 학교의 경우 고등학교 1·2학년마저도 특별활동 시간에 아예 보충수업이나 자율학습을 진행하기도 한다.

클럽 활동 운용의 내용을 더욱 깊숙히 파들어 갈수록 문제는 심각하다. 각 학교에서 설치할 수 있는 서클 수는 학교 교사의 수와 교실의 수에 달려 있다. 예를 들어 각 학년 12개반으로 편성된 고등학교의 경우, 교실의 수는 일반 교실 24개(3학년 제외)와 특별 교실 10여개가 보통이다. 그렇다면 운동장 수업을 포함하여 30-40개가 최대 가용 부서인 셈이다. 이 정도로 학생의 다양한 욕구를 충족시키기는 어렵다. 더구나 소규모 학교의 경우는 부서 편성이 훨씬 제약될 수밖에 없다. 또 학교 교사들이 클럽 활동 진행에 필요한 적절한 기능을 갖지 못하기 때문에도 학생들의 다양한 욕구를 채우기 어렵다.

또 앞의 학교에서 한 교실에 배치되는 평균

학생 수는 대략 40-60명이 되리라 예상될 것이다. 이 과대 학급에서 할 수 있는 클럽 활동이 무엇일 지는 상상하기 그리 어렵지 않다. 60명이 모인 축구반, 40명이 모인 연극반, 50명이 모인 문예반..., 이것이 우리나라 클럽 활동 현장의 한 단면이다.

클럽 활동에 대한 평가도 대단히 형식적이다. 지금까지 생활기록부의 특별 활동란에 적극적임, 보통임, 소극적임의 3단계로 절대 평가를 하여 왔는데, 교사들은 이 평가 자체를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은 탓으로 대부분을 '적극적임' 평정 점수를 주어왔다. 1994년부터 실시되는 대학입시(92년 3월 현재 2학년부턴 적용)에서 특별활동 평정이 내신 점수에 반영되고, 내신 점수가 대학입시 점수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기존의 30% 이상에서 40% 이상으로 상향 조정됨으로써 특별 활동 평가를 보다 신중히 할 필요성이 생기자, 이제는 학부형으로부터의 이의 제기를 받지 않기 위해서, 혹은 해당 학교의 진학률을 높이기 위하여, 학생 대부분의 평정을 가, 나, 다 중 최고 점수인 '가' 를 주고있어 이전과 마찬가지로 평가가 형식적이고, 특별활동을 대신에 반영하도록 한 취지는 무색하게 된 셈이다.

이상의 논의에서 클럽 활동이 파행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이유는 입시 위주의 교육 풍토와 클럽 활동에 필요한 교육 여건의 미비 때문임을 알 수 있다. 주 1시간으로 편제된 클럽 활동에만 우리의 시각을 한정시킬 경우에 이외에는 다른 요인이 없는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문제의 핵심은 다른 특별활동, 즉 학급회의나 학생회 활동도 파행적으로 운영되고, 클럽 활

동 이전에 동아리 활동 자체가 위축되어 있다는 점이다.

III. 동아리 활동의 실태와 문제점

앞에서 밝힌대로 클럽 활동이 학교 시간표 상에 배정된 시간에 이루어지는 교과외 활동이라면, 씨클 활동, 즉 동아리 활동은 주어진 시간 이외에도 독자적으로 이루어지는 교과외 학생 집단 활동이다. 클럽 활동은 주 1시간 동안만 교사의 지도안대로 실시만 되었다면 매우 성공적인 활동이지만, 동아리 활동은 학생들이 최대의 가용한 시간속에서 집단이 민주적으로 일을 결정하고 그 결과가 유익했다면 이는 성공적인 활동이다.

그러나 클럽 활동과 동아리 활동은 별개의 것은 분명 아니다. 클럽 활동의 현실은 그대로 동아리 활동의 현실로 이어진다. 입시위주의 교육 풍토는 클럽 활동에 관한 무관심 뿐만 아니라 동아리에 대한 무관심을 야기하는 것이다. 한편, 클럽 활동은 동아리 활동의 여러 난맥상 때문에 성공을 거두지 못한다. 예를 들어 동아리 활동이 활발하지 않기 때문에, 클럽 활동 부서 편성이 번거롭고 교사들의 자질이 필요 이상 요구되는 것이다.

동아리는 그 기준에 따라 여러 종류로 나누어질 수 있다. 우선 활동 내용에 따라 다음과 같이 동아리를 분류할 수 있다.⁸⁾

- (가) 학예 활동 동아리; 문예, 신문, 웅변, 토론, 과학, 컴퓨터, 합창, 기악, 서예, 회화 등
- (나) 체육 활동 동아리; 육상, 체조, 구기, 투기, 수영, 민속놀이 등

8) 문교부, 앞의 책, p 159를 참고한 것임.

(다) 생산 근로 활동 동아리, 사육, 재배, 전자, 목공, 주산, 타자, 협동조합, 해양탐사, 요리 등

(라) 청소년 단체 동아리; 적십자, 보이 스카우트, 걸 스카우트, 청소년 연맹 등

(마) 여가 활동 동아리, 바둑, 장기, 등산, 낚시, 음악 감상, 미술 감상 등

(바) 종교 활동 동아리; 불교, 기독교, 카톨릭, 원불교 등

동아리는 학교 및 학생회로부터의 공인 여부에 따라서도 다음과 같이 분류될 수 있을 것이다.

(가) 공인 동아리; 특별활동 부서로 편성되어 적절한 지도 교사와 활동 공간이 주어진 경우를 말한다. 공인 동아리는 학생회비와 육성회비 회계 상의 적절한 예산이 주어지며, 학교 축제, 경연대회 등의 행사에 참가할 권리를 갖는다. 학생회 측은 학교의 공인 절차와 별개로 '동아리 연합회'라는 조직을 통해 공인 동아리를 형성하려는 경향이 있으며, 이를 토대로 동아리 활동에 관한 대(對) 학교 로비를 실시하는 일이 많다.

(나) 소모임; 학교측에서 인정하지 않거나, 아예 인정을 신청하지 않은 동아리를 일컫는다. 그러나 학생회와의 갈등은 없고, 오히려 특이한 상황 하에서는 학생회로부터 활성화 대상이 되기도 한다. 독서 모임, 민중 문화 연구 모임, 역사 연구 모임 등의 소위 '운동권'이라 불리우는 동아리들은 대부분 소모임의 형태를 띤다. 학생회 활동이 학교측으로부터 제약을 당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학생들은 학생회의 사실상 구심체로서의 학생회 운영 소모임을 따로 꾸리는 경우도 있다. 비정치적 성격을 갖는 동아리라 할지라도 특별한 사정상 지도 교사와 교실이 주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학생들이 강력

하게 그 동아리를 유지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 도 이 비제도권 동아리 형태를 띤다.

(다) 음성 씨클; 음성 씨클은 여러 형태를 갖는다. 흔히 폭력 조직이 학교와 연계된 형태로서의 음성 씨클 *gang*이 있는가 하면, 순전히 성인에 가까운 향락과 이성 교제를 주 목적으로 하고 있는 음성 씨클도 존재한다. 이들 조직은 소모임의 형태와 비슷하게 비공개 조직이나, 소모임이 언젠가 공개할 것을 의도한다면 음성 씨클은 처음부터 공개하기를 거부한다.

동아리 활동의 연계조직에 따라서 다음과 같이 묶을 수도 있다.

(가) 교내 독립적 동아리; 순수 학내 동아리들로서, 주로 지도교사 및 지도급 학생의 개별 역량이 동아리 활동의 성패를 많이 좌우한다.

(나) 지역 수준의 동아리; 지역 수준의 동아리는 1980년대 후반 지역사회의 민주화운동이 거세지면서 많이 만들어졌다. 특히 지방자치의 실현은 지역 수준의 청소년 단체의 설립을 자극하고 있어 앞으로 더욱 많이 만들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예를 들어 서울 동북부 지역의 '푸른 소나무', 서울 금호·옥수 지역의 '밀알회' 등이 있다. 그러나 지역 수준의 동아리들은 아직 지방자치단체가 적극적으로 이들을 수용할 태세가 되어있지 않아 비제도권으로 묶여 있고, 따라서 학내에의 진출도 용이하지 않아서 교내 활동은 거의 전무한 실정이다.

(다) 전국 청소년 단체에 가맹된 동아리; 대한카톨릭학생총연맹, 대한불교청년회, 원불교청년회, 울곡향약회, 한국기독교학생회총연합회, 한국청소년연맹 등 청소년단체로 등록된 단체의 산하 기구로서 교내에서 활동하는 동아리들이 있는가 하면, '푸른나무 이야기모임' 등

의 비제도권 청소년단체에 가맹된 동아리들이 있다.

(라) 국제 청소년 단체에 가맹된 동아리 ; UN 한국학생협회, YMCA, YWCA, MRA, 적십자, 보이 스카우트, 걸 스카우트, 한국 UNESCO 학생협회, Youth Hostel등의 학내 동아리들을 일컫는다.

우리가 동아리를 구분할 경우 흔히 갖는 큰 관심은 대개 학교측의 공인 여부에 관한 것이다. 즉, 학생 집단의 자생성, 자발성, 자주성을 학교 측에서 하나의 교육적 목표로 간주하고, 이의 성사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가에 관한 것이다.

동아리 활동이 성공적인 몇몇 학교를 제외하고는 중등학교의 동아리는 대학교 동아리처럼 양성화되어 있지 못하다. 서울시내 한 고등학교의 사례를 보면 ‘동아리’라는 말 자체마저 공식화하기를 거부하였다. 1990년, 당시 학생회 주도 하에 학생회칙 개정 작업에 들어 갔으나, 학교 당국 간의 의견 불일치는 ‘동아리 연합회 설치유무에도 나타났는데, 이 때 학교에서 ‘동아리’라는 용어를 ‘씨클’ 이란 용어로 대체해달라고 주문한 것은 ‘동아리’ 라는 용어로 대체하려는 의도가 순수하지 못하다는 이유에서였다. 동아리를 반체제 이데올로기가 함의된 용어로서 파악한 것이다.

동아리 활동에 대한 학교 측의 반응은 어떤가?

서울 고등학교에 다니는 여학생으로서, 이번 학기에 학교에서 일어났던 몇가지 납득할 수 없는 학생 처벌 사례를 알려, 다시는 그와 같은 불미스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가명으로 이 글을 쓴다.

얼마 전, 우리 학교에서는 ‘빛물이’ 라는 문학 동아리를 강제로 해체시켰다. 그 이유는, 지도 교사가 없이 남녀 학생이 자리를 같이하는 경우 풍기가 문란해질 가능성이 있다는 것과 함께, 졸업한 선배를 만나 의식화교육을 받을 우려가 있다는 것 등이었다. 뿐만 아니라, 학교 측은 ‘빛물이’ 의 후보내용을 문체삼아, 지난 9일 회원 18명 중 3명을 교장선생님 등 몇 분만이 참여한 징계위원회에 회부, 무기정학에 처하고 나머지 15명은 근신처분을 내렸다. 후보 내용에 “4·19 때 태어났더라면 어떻게 했을까?” 라는 질문에 대해, “시위에 참여했을 것이다”라는 대답과, “존경하는 시인이 누구입니까?” 라는 것에 “김지하 시인이다”라고 응답하는 것을 실은 것이 징계 사유라는 것이다. 이와 더불어, 학교 중창단의 이름(시나브로, 테두리, 그르매)이 순 우리 말임에도 불구하고 쉬운 말로 바꾸라고 강요하는가 하면, 급기야 중창단을 하나로 통합하라고 지시했다. (이하 생략)⁹⁾

부산에서는 고등학생들이 우리 것을 찾기 위해 우리 민족의 전통놀이인 풍물(농악)을 많이 배우고 있다. 그런데 풍물을 배우려면 대학교 형이나 부담이 큰 교습소를 찾아야 한다. 그래서 고등학생들은 부담이 작은 대학교에서 취미 활동으로 배우게 되는데, 문제는 학교이다. 몇몇 학교는 ‘전통문화연구반’ 이라는 동아리를 만들어 도와주는 반면, 몇몇 학교는 풍물을 배우는 학생들을 위협시키고, 심지어 구타까지 하고 있는 것이다. 몇달 전, 부산 사고에서는 학예전에서 풍물놀이를 하려고 했던 학생들을 학예전 하루 전에 불러 학예전 포기를 강요하고 구타하는 일이 벌어졌다. 이유는 고등학생이 불법으로 모임을 만들었다는 것이다. 또 얼마 전 부산 포고등학교에서는 풍물을 배웠던 적이 있는 학생들을 불러놓고 구타하고, 징계 처벌한다는 협박을 하고 심지어는 “다시는 배우지 않겠다” 는 각서를 받아냈다고 한다. 학교 쪽에서는 풍물을 배우면 의식화가 되고, 더욱이 대학교에서 배우면 대학생에게 의식화 교육을 받는다고 주장하고

9) 한겨레신문 1991. 7. 22

있다. 왜 우리는 피아노나 바이올린은 적극 장려를 받으면서, 정작 우리 민족의 음악·풍물을 배우는 것은 억압을 받아야 하나? 정말 이것이 바람직한 교육 인지를 어른들에게 물고싶다.¹⁰⁾

위의 사례는 처음부터 학교 측이 동아리 활동을 위축시키고자 하는 의도로 학생들을 징계 위원회에 회부하거나, 체벌을 가한 사례이다. 징계위원회에 회부되었을 경우 학생들이 받은 혐의는 대체로 다음 중 하나였을 것으로 생각된다. 서울시내 한 고등학교의 선도위원회 규정(=처벌 규정)은 다음 사항에 대하여 ()안의 처벌을 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1) 수업 태도 불량자 및 면학 분위기를 저해한 자(근신)

(2) 학교나 교사의 정당한 명령이나 지시를 고의로 위반하거나 반대한 자(근신 혹은 유기정학)

(3) 학교장의 허가없이 외부 행사에 출품, 출연 또는 참가하여 학교의 명예를 훼손한 자(근신 또는 유기정학)

(4) 학교 질서를 문란시킬 목적으로 학생의 모임을 꾀한 자(유기 혹은 무기정학)

(5) 외부의 불순 세력에 가입 또는 연계되어 불순 행위나 정치성을 띤 활동을 한 자(무기정학 혹은 퇴학)

(6) 학생을 선동하여 학교 질서를 문란시키거나, 집단 행동을 주동하거나 이에 동조한 자(무기정학 혹은 퇴학)

(7) 교사의 온당한 지도에 행동으로 저항한 자(퇴학)

이 규정의 내용은 교육부의 '선도위원회 규정 준칙'에 의거하여 제정된 것이기 때문에 다른

학교의 사정은 크게 다르지 않다. 학생 처벌 규정의 상위법은 교육법 제76조이고,¹¹⁾ 다시 교육법 제76조는 헌법이 부여하는 기본적 인권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할 수 없는 것이어야 당연하지만, 위 처벌 규정에서는 학생에 관한 한 기본적 인권은 정지되어 있다. 더구나 무엇이 '불순 세력'이고 '온당한 지도'인지 애매모호하게 규정되어 있어 법규정의 '형식 논리'마저 미비되어 있다. 이것이 바로 우리나라 학교 교육의 엄연한 현실이다.

물론 학생들이 헌법에서 보장하는 제 권리를 똑같이 보장받을 수는 없다. 학교에서의 학생들이 권리가 제한되어야 한다는 근거는 특별권력관계이론과, 재학계약설 두가지가 있다.¹²⁾ 특별권력관계이론은 일반 권력관계와 달리 공법상의 영조물을 이용하는 자는 관리자의 광범위한 재량 하에 놓여있다는 이론이다. 독일에서 발전한 이 이론은 현재 법치행정 구현 및 행정 민주화의 시대적 요청에 의하여 많은 비판을 받고 있다. 학교와 학생의 관계가 특별권력 관계에 속한다 할지라도, 학교의 설치 목적인 '교육적 목적' 내에서만 학생의 인권은 제약되어야 한다. 두번째의 재학계약설은 학칙사항은 계약 사항이기 때문에, 이 학칙에 따라 학생의 기본적 인권은 제약될 수 있다고 본다. 그러나 계약은 공정해야 하며, 학교와 학생 개인의 이익이 상호 균형을 이루는 데에 의의가 있다. 그리고 역시 헌법 제37조가 밝히는 대로

10) 한국일보 1990. 11. 27

11) 교육법 제76조 제1항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각 학교의 장은 교육상 필요할 때에는 학생에게 징계 또는 처벌을 할 수 있다."

12) 홍정선, "학생의 법적 지위에 관한 소고", 한국교육법학회 편, 교육의 자유와 대학의 자치, 서울·대학출판사, 1986, pp 123-128

기본적 인권은 성인과 마찬가지로 보호되어야 하며, 다만 차이는 다른 방식으로 보호된다는 것이다. 여기서 다른 방식이란 학생에 대한 행정적 조치의 목적이 교육적일 뿐만 아니라, 그 수단도 교육적이어서 함을 의미한다.

동아리 활동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헌법상 권리는 표현의 자유와 신체의 자유이다. 여기서 신체의 자유는 학생 처벌이 적법 절차에 따라야 함을 의미한다. 표현의 자유는 언론·출판·집회·결사의 자유, 학문과 예술의 자유 등이 이에 속한다. 즉, 동아리의 설립, 운영, 개인 회원의 가입·탈퇴는 자유로워야 하며, 의사 표현도 제약당해서는 안된다. 미국 판례들은 학생들의 자유로운 의사 표현이 학교의 정상적인 운영이나 다른 학생의 권리에 본질적이고도 중대한 피해를 주지 않는 한, 그리고 그 내용, 방법, 시간, 장소 등이 지나치게 비교육적이거나 비정상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학교 안에서 최대한 보장되어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다.¹³⁾

동아리 활동이 설사 인정되고 지도교사와 교실이 충족되었다 할지라도, 활동에 필요한 자금이 지원되지 않으면 안된다. 동아리 활동비는 직접적인 교육 활동이라 간주하기는 어려워 학교의 일반 회계에서 지원되지 않고 따로 학생회비를 거출하여 여기서 동아리 활동비가 편성되어 지출된다. 학생들은 학생회비 예산 및 결산은 학생회의 본질적 권한이라고 주장한다. 여기에 비해 학교측은 교육적 필요상 학생회비 관리는 전적으로 학교 측에 속하는 권한이라

본다. 예산 부족이 특별 활동을 위축시키는 요인 중 하나라는 선행 연구들의 결론을 보다 깊숙히 들여다 보면, 학생회비가 학생회 및 동아리 활동에 적정 지출되지 않고, 학교의 일반회계에 계상되어야 할 사항들이 학생회비로부터 엄출된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다음은 어느 학생의 투고 내용이다.

내가 다니는 ○고등학교에서는 지난 4일 학생회비 예산안을 통과시키기 위한 학생대의원회가 열렸다. 학생회칙 제26조 1항에는 ‘학생회비는 학생회 활동 밖의 목적에 사용할 수 없다’고 되어 있다. 그래서 등록금에 7천원씩 덧붙여진 이 돈을 아무 불평없이 내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이번 학생회 예산안은 학생들을 배제한 채, 한 간부선생님이 일방적으로 만들었으며 이 선생님은 대의원 대회에 나와 “쓸 데 없는 말은 하지 말라” “통과 안 시키면 집에 못간다”는 등 학생들의 자유적 의사를 원천봉쇄하고 통과를 강행시켰다. 올해 예산안 내역을 보면, 20%가 넘는 350만원이 지도교사의 지도비로 책정되어 있는데, 이는 학생회칙에도 위배될 뿐만 아니라 사용목적도 애매하기 짝이 없다.¹⁵⁾

여기서 지도비란, 교문에서의 등하교 지도, 소풍 및 체육대회, 축제, 백일장 등의 인솔 지도, 교외 지도 등을 의미한다. 이상의 교사 활동에 대한 경비는 출장비 및 초과근무수당으로 지출되어야 할 성질의 것이다. 투고한 학생이 지적하고 있는 것은 학생회비 경비가 잘못 쓰이고 있는 하나의 사례에 불과하다. 이러한 일도 어느 학교나 크게 다르지 않다. 학생회비는 교육부의 관리지침에 따라 운용되기 때문이다.

13) 최윤진, “학생 청소년 권리의 내용과 그 제한 근거에 관한 고찰”, 한국청소년연구원 편, 한국청소년연구 제2권 제4호, 1991년 가을, p 54

14) 최윤진, 위의 논문, p 63

15) 한겨레신문, 1991. 4. 14

동아리 활동은 학교 축제 행사를 통해 고양되고, 완결된다. 그간 동아리 활동을 통하여 성숙된 자신을 신 앞에 제물로 바치는 행사가 바로 축제이다. 그러나 학교가 축제를 '학예 발표회'로만 축소하려는 경향과 축제의 진행에 있어 학생회 측의 참여가 보장이 되지 않은 점을 학생들은 가장 불만족스러워 하는 것처럼 보인다. 한 신문의 취재 기사는 많은 것을 말해 준다

...서울 영등포구 1고의 경우 학교측이 지난달 11일 축제 일정을 사진반...보컬 그룹 등 12개 특별활동반만의 발표행사만으로 제한해 진행하겠다고 발표하자, 일부 학생들이 학교 주변에 "전교생의 폭넓은 참여가 보장되어야 한다"는 대자보를 붙여 교사들이 급히 떼내는 소동을 빚었다. 학생들은 이 대자보에서 "가을 축제는 몇몇 특별활동반만의 잔치가 아닌 대동놀이나 반별 장기자랑대회 등 전교생들의 자발적인 참여가 가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학교에서는 지난 달 26일 학교측의 애초 계획대로 축제가 치러지자 이를 비난하는 내용의 유인물이 또다시 교내에 나돌기도 했다.

이 밖에도 전남 보고에서는 학생들이 축제의 마지막 행사로 대동놀이를 준비했으나, 집단행동이 우려된다는 이유로 학교측이 이를 막자 학생들의 항의 소동이 벌어지기도 했으며, 서울 관악구 1고, 중랑구 사여고 등 상당수의 학교에서도 대동놀이 행사 개최 여부를 놓고 크고 작은 실랑이가 벌어졌다.¹⁶⁾

이상과 같은 예산 배정, 축제 행사 계획은 동아리 개별의 문제가 아니고, 전체 동아리 공동의 문제이다. 공동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동아리의 연합 조직이 별도로 필요하게 되는데, 이것이 '동아리 연합회'라는 명칭으로 불리우는 학생 조직이다. 동아리 연합회 조직 설치를 학생들이 요구한 학교 중의 일부 학교

에서는 동아리 연합회 자체를 붙은시한다. 굳이 학생회 조직과 다른 별도 조직을 만들려는 의도가 불순하다고 보는 시각 때문이다. 학교측의 반대에도 만들어진 동아리연합회는 하나의 비제도권 동아리가 되고, 여기에 가입된 동아리 모두 비제도권 동아리가 된다. 그러나 동아리 연합회를 수용한 학교에서는 동아리연합회를 학생회산하에 둠으로써 학생회 활동을 활성화하고, 학생 중심의 학교 행사를 기획, 운영하기도 한다.

IV. 결론 및 대책

지금까지 교과외 활동으로서의 동아리 활동의 실태를 하나의 담론 *discourse* 형식을 통해 점검해 보았다. 이상의 논의에서 필자가 가지는 문제의식을 한마디로 간추리면, 지금까지 학교는 교육과정 실현의 주체를 학교 교사로 이해하는 바로 그 연장선에서 동아리 활동을 이해하는 잘못된 시각 때문에, 동아리 활동의 주체인 학생들의 자생성과 자발성이 극도로 위축되고 있다는 점이다. 교육과정 지침서는 교육과정을 교과 과정과 특별 활동으로 나누고, 동아리 활동을 특별 활동의 하나로써 분류하고 있는데, 이러한 분류에는 이견이 없다 할지라도 일반 교과과정과 교과외 활동의 차별성은 우리가 먼저 이해하지 않으면 안된다. 즉, 교육과정속에 특별 활동을 *course of study*의 하나로써 인정하거나 졸업에 필요한 이수 과정으로 두는 것은 교과외 활동의 강화 수단으로 바람직한 것이라 할지라도, 이로 인하여 교과외 활동이 마치 교과 활동처럼 다루어져서 안된다

16) 한겨레신문, 1991. 11. 3.

는 것이다. 그 차별성의 핵심이란 활동의 주체가 누구인가 하는 데에 있다. 교과외 활동에서 학교(교사)의 임무는 학생들의 자발적이고 자생적이며 자주적인 활동들을 행정적으로 지원하며, 조정하며, 평가하는 데 그쳐야 한다.

이 점에서 이 글은 클럽 활동에 관한 선행연구들과 그 시각을 달리한다. 선행 연구들은 클럽 활동 부진 원인이 클럽 활동에 필요한 교육여건이 미비하고, 입시 위주의 교육풍토로 인해 학교, 행정가, 교사, 학생의 관심이 부족한 때문이라 보고 있다. 이러한 주장을 상당 부분 사실이나, 교육 여건 및 입시 풍토의 개선은 조만간 해결될 것으로 보이지 않는 상황 하에서 이에만 탓을 두는 것은 학교에서 할 수 있는 노력을 기피하는 한 원인을 제공한다는 측면에서 완전히 동의하기는 힘들다. 클럽 활동이 부진한 것의 상당 부분은 클럽 활동이 클럽 활동답게 이루어지기 위한 제도적 장치와 학교 문화의 미성숙에 기인한다고 보기 때문이다.

선행 연구들이 클럽 활동 부진 원인을 단순히 객관적인 여건 탓으로 돌리는 것은 분명 교과외 활동의 주체 문제가 사회적 쟁점으로 부각되는 것을 피하려는 의도로 보인다. 선행 연구들이 다른 특별활동, 즉 학급회의와 학생회 활동에 대해서는 거의 주목을 하지 않는 이유도 마찬가지로 이유에서이다. 만약 교육과정 시간표에 배당된 주 1시간의 클럽 활동만으로 시각을 한정하지 않고, 학급회의, 학생회 활동, 동아리 활동으로 시각의 범위를 확대해 본다면, 분명 그 부진의 원인이 이러한 특별활동의 주체인 학생들의 자발성과 자주성을 학교가 오히려 위축시키고 있는 데 원인이 있음을 알 수 있다.

특별활동에서의 학생의 자발성, 학생 집단의

자생성, 의사결정의 자주성은 특별활동의 본질적 성격에 해당하는 것이다. 우리가 전인 교육과 민주 시민 교육을 논의할 경우, 교과 교육 보다는 특별 활동에 보다 주목하는 것은 특별 활동이 전인 교육·시민 양성 교육에 보다 직접적으로 부합되는 교육활동이라 여겨지기 때문이다. 특별 활동이 이러한 교육 목표에 보다 부합하는 경우는, 학교에 옮겨진 '축소된 사회' 속에서 스스로 집단에 참여하고, 민주적으로 의사를 결정하고 이에 책임을 지는 광범위한 기회를 학교가 학생들에게 제공해주는 한에서이다.

그러나 현실은 너무나 다르다. 학교가 학생의 자발성, 학생 집단의 자생성, 학생 활동의 자주성을 오히려 위축시키고 있는 것이다. 필자는 이의 실례로써 학생들의 여러 글을 살펴 보았다. 그리고 이것이 단순한 우발적 사례가 아니고 우리나라 학교의 보편적 상황임을 주시하기 위하여 동아리 활동을 제약하는 학교 규정, 예산, 연계 조직, 활동 공간으로서의 축제 행사의 현실을 언급하였다.

특히 동아리 활동을 위축시키는 중요한 요인으로서, 동아리 문화를 하나의 대항 이데올로기로 파악하려는 학교 행정가의 의식을 곳곳에서 지적하였다. 이러한 의식의 발원지는 일제 식민지 교육 풍토라 여겨진다. 일제 식민지 치하에서 민족 교육은 일부 민족 학교를 제외하고는 오늘날의 동아리 형태로 이루어져 왔으며, 해방 이후에도 정치권력이 학교에 부단한 간섭과 통제를 가해 왔으나, 그래도 교육을 더 받은 학생들이 그렇지 않은 학생들보다 보다 민주주의의 주체 세력으로 남을 수 있었던 것은 바로 동아리 활동의 덕택이다. 동아리 활동이 대항 이데올로기일 수밖에 없었던 역사적

이유는 대강 이렇다.

이제 민족 주체성의 교육, 민주 시민 교육은 학교의 중요한 목표가 되었다. 학교가 민족 교육과 민주 교육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역사적 산물인 학생의 주체적 활동을 더이상 대항 이데올로기로써 다루기보다는 목표 실현을 위한 과제로써 발전시키지 않으면 안된다. 특히 권위주의적 학교 풍토 속에서 학생 활동을 교육적 차원으로써가 아니라 관리적 차원으로써만 대해 온 교육 관리나 학교 교사들의 타성은 극복되지 않으면 안된다.

보다 근본적인 개선은 제도화에 관한 것이다. 학교의 제 규정이 헌법이 보장하는 인간의 권리를 원천적으로 제한하고 있는 것은 위헌이다. 특히 학생들의 표현의 자유, 결사의 자유는 동아리 활동의 기본적 권리에 해당한다. 이러한 권리에 대한 제한은 제한의 목적과 수단이 교육적 의의를 가지는 한에서만 합법적이다. 더구나 우리의 교육목표가 미래의 민주적 시민을 양성하고 스스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고양시키는 데 있다는 점에 동의하는 사람이라면, 학생이 가지는 권리 신장의 의의에 대해 동의하지 않으면 안된다.

그러나 학생의 권리 신장은 입법적 수준의 문제는 아니다. 그것은 학생들이 개정을 바라는 학생회칙 중에서 학교가 승인하여야 할 성질의 것이고, 학교의 징계 규정을 보다 민주적, 교육적인 것으로 개정하는 문제에 관한 것이다. 학생회칙을 사실상 학교가 만들고, 학생회비를 학교가 집행하며, 징계 규정은 '항시적 제엄'을 방불하게 하는 현행 방식은 민주 교육과는 거리가 너무 멀다. 학생회는 학생의 것이고, 학생회칙과 학생회비는 학생회의 것이다. 학교(교사)는 학생회칙 내의 논리로 자문기구에 불과하며, 학생 활동에 대한 관여는 어디까지나 교육적 자문 역할, 행정적 지원 역할에 한정되어야 한다. 만약 그 관여가 통제의 수준까지 필요한 경우는 학칙이나 징계 규정에 의거한다. 그리고 징계 규정은 교육적으로 규제되어야 할 구체적 행동을 보다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하고, 징계 절차가 보다 신중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개정되어야 한다. 결국 동아리 활동이 보다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는 문제는, '학교 민주화'라는 시대적 요청과 접맥되어 있음을 인식해야 할 것이다.